

# 금남로에서

### 정재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개혁이든 '추진 세력을 강화할 것인가' '저지 세력을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경영 컨설턴트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원칙중심의 리더십'에서 '저지 세력 감소에 3분의 2 정도의 힘을 사용하고 3분의 1의 힘을 추진 세력 증대에 사용하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는 이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성공한 개혁'보다는 '좌초한 개혁'이 훨씬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도 아니다. 한국 공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고질병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교육지도자가 나타나도 하루아침에 확 뜯어고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 해도 요즘 지역 교육계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마음은 대단히 편치 않다.

존심에 찢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만약 이 사건이 영화화되지 않았다면, 여론이 들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광주시 교육청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실망스런 일은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광주시 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위로 지난해에 비해 4단계나 하락했다. 전남도 교육청은 8위로 무려 6단계나 추락했다. 지역민이 개혁성향의 교육권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부정부패 근절이었다. 비리

폭력으로 얼룩지고 비리에 물든 것은 기본과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지역 공교육은 학생들이 공동체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학교 교육은 매우 복잡하고 대학 입시, 취업 등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인성 교육과 좋은 성적,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왕도(王道)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려울 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 기본·원칙·소통 절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감은 시·도민의 2010년 6·2 지방선거 선택의 의미를 헤아려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 개혁과 혁신에 대한 초석이 변해선 안 된다. 그러려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소통해야 한다. 내 편, 네 편을 갈라서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MB 정부의 실패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지역 교육의 개혁은 앞으로 끊임없는 방해와 음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수록 지지세력은 물론 지지세력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포용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소통에서 나온다. 지역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 좌초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논설실장> jhjung@kwangju.co.kr

# 누구를 위한 교육 개혁인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은 지난 2010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교사 출신과 진보 대학교수를 시·도 교육감으로 선출했다. 이 같은 지역민의 선택은 지역 교육의 개혁·혁신을 통해 광주·전남, 나아가 국가를 이끄는 인재 양성을 해달라는 열망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일까. 지난 1년6개월 동안 지역 공교육에 대한 지역민의 평가는 '별로'다. 아니 '불편한 심사'가 보다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비록 현 광주시 교육감 체제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더라도 '도가니 사건'은 지역민의 자

가 상존하는 한 개혁·혁신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지역 교육계가 맑아지기는커녕 더욱 혼란해졌다. 이 같은 평가가 내려졌으니 지역민의 심사가 불편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러웠던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개혁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원칙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반발과 혼란을 부르는 개혁일 뿐이다. 특히 미래의 동량(棟樑)을 양성하는 교육에서 기본과 원칙, 그리고 이를 실천수행하는 것은 제1의 덕목이다. 학교 교육이

## 참담한 지역교육 자화상

올해처럼 광주·전남 교육계가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해도 없었다. 온 국민의 공憤(公憤)을 불러 일으킨 '도가니'를 비롯한 각종 교내 성추행 사건,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잡음, 끊이지 않는 비리,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는 학사 행정,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는 교권 등등. 올 한해 지역 교육계는 하루가 편할 날이 없을 정도다.

물론 이 같은 문제는 광주·전남 교육계만의 일이 아니다. 또한 어제오늘의 문제

# 민주당 호남 공천 신중해야 한다

## 은평칼럼



### 김병인

제19대 총선을 3개월여 남겨둔 현재, 서울시 재보선 선거의 야권 단일후보의 승리에 이어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동 등이 참여한 통합민주당이 출범하면서 총선 분위기가 후끈하다. 우리 지역에서 19대 국회 임정을 노린 입지자들의 열광 일리기 위한 출렁이가 수시로 열리는 등 총선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다. 국회의원 전원인 야권이 이 지역의 특성 상 통합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고 야권의 텃밭인 호남의 내부 개혁에 대한 열망도 크다. 전통의 민주당에 혁신

과 통합의 진노와 일부 시민 세력의 참여로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순항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변화의 욕구를 수용하고 원칙과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고 시민 후보에게 양보하였지만, 시민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시키는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다. 야당이 서울 시장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을 것이다. 국민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먼저 반성하고 정확하게 현재의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10·26재보선에서 비록 한나라당이 서울 시장선거에서는 졌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30%에 가까운 정당지지율을 갖고 있고 유력한 대권 주자도 있다. 민주당이 잘 해서가 기본보다는 반한나라당 정서 속에서 국민의 역선택을 받았다. 자기 반성과 철저한 내부

개혁을 해야만 국민의 진정한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호남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역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지난 수년간 민주당의 오만과 부패가 야기한 것이라고 본다. 전임 시장의 처남 주유소 사건이나 국회의원의 땅 사건 등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법적 결과 운운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바쁘지만 법적 책임보다 도덕적인 죄가 더 크다. 매 번 총선이 다가오면 지역에서는 물갈이 여론이 들끓고 실제 물갈이 공천이 이루어졌지만 항상 수월이 문제였다. 지역민의 여론은 기본적으로 지난 18대 총선과 거의 같다.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참신한 후보를 원한다. <서영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실질 민주당의 호남 물갈이 공천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총선을 3개월여 남은 현재의 여론으로 봐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참신한 후보라면 당선이 유력한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당원이 정당의 주체인 것은 맞다. 그런데 당원이 국민의 변화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데 그대로 당원 중심의 후보 선출 방식을 고집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기존의 여론 조사 방식이나 체우관 선거로도 인재 수혈이 어렵다. 과감하게 기록권을 포기해야 한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호남 사람들은 민주주의 성지라는 자부심이 있다. 이번 총선에는 민주주의 성지에 걸맞은 후보로 호남의 민심이 부응해야 한다. 호남에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민심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호남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다. <서영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평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평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 기고

# 안전불감증 없는 새해를 희망하며



### 나강문

쏟아진 세월이라 했던가. 참으로 무상한 것이 세월임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광주 봉선동 대각사의 주지이신 퇴학자 스님께서는 평소 신도들이나 제자산을 찾은 등산객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곤 하는데 "세상에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이 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시급한 일에 매달린다. 세상일은 시급한 일이지만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時時移移하여 逐逐日夜하며, 日日移移하여 逐逐月晦하며, 月月移移하여 忽忽來年至하며, 年年移移하여 暫到死門하나니'라는 법문을 소개해 주셨다.

이런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지은 발심수행장의 한 대목으로 "시시각각 흘러가서 속히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지나 금세 한 달이 지나가며, 달달이 흘러 출연한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 한 해가 지나니 잠깐 사이에 죽음이 문턱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최근 그 안타까운 죽음으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만약 오늘이 내가 죽기 바로 전날이라 한다면 과연 나는 오늘 내가 하려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대답이 '노우'에 이르자, 그는 뭔가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각자 스스로에게 던져볼때면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시급한 세상일에 길들여져 세상의 노예처럼 살 것인지, 자신의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고 삶의 주인공으로 살

것인지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사람은 잘못될 습관이 문제이다. 시급한 일에 쫓겨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며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 세상의 시급한 일들에 밀려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위 '안전불감증'이다. 필자는 그동안 119로 대변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소방관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달은 바가 많다. 왜 사람들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소방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끔찍한 화재를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걸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는 무슨 소용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당장 매출을 올려야 하는 유혹 때문에 비상계단마다 물건을 쌓아 놓기도 하고, 고장 난 비상경보기 수리를 내일로 미루는 가 하면, 철로 만든 비상계단의 보수도 깜빡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언제 사다 놓았는지 모르는 소화기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가스가 빠져 폐기물이 된 채 방치되어 막상 큰 화재가 나면 화재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우리 소방관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만 현상들이 곳곳에 비일비재하다.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소방계획 수립과 소방훈련 실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중요한 일이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방화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의 소방 시설을 둘러보는 일들은 다른 시급한 사안들에 밀려 일들이 모두 끝난 후에 남은 시간에 돌리보기도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스티브 잡스의 질문을 되돌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해도 좋지 않을 것인가?" 안전은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 지금 당장 사고가 눈앞에 있지 않다고 해서 중요한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광주동부소방서장>

급을 받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 1, 2등급 격차가 날수는 있지만 1등급과 7등급의 격차 같은 형태는 너무 문제가 큰 것이다. 현대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말하는 것조차 객관적인 평가를 해줘야 하는 국내 최대 평가회사가 이렇게 제각각이니 이들의 평가에만 의존하는 서민들은 너무 억울한 평가 덕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란 들쭉날쭉한 신용평가로 인해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나 신용등급에 따라 수혜 대상을 정하는 서민대출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과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경자·순천시 안동동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직장에서 잘리는 사람,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날로 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이라는 게 가게만 꾸리면 다 먹고 사는 게 아니다. 10개 중에 2개만 살고 나머지는 다 망하거나 2개 정도가 간신히 현상 유지만 하는 게 요즘의 자영업 실태라고 한다. 장사를 하는 서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은행이다.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을 경우 일반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거나, 혹은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과 새희망플러스대출 같은 걸 받는다.

개인들은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없을 경우 개인신용등급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평가사들의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한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3대 신용평가회사의 등급별 평가인원을 분석해 봤더니 똑같은 인물에 대해 세 회사가 각자 다른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주요 서민대출 대상인 5, 6, 7등급은 그 격차가 더 크다고 했다. 똑같은 조건의 한 자영업자는 한 곳에서 7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이런 3, 4등급이 1, 2등급, 혹은 5, 6등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시설

# 원룸 건축주 지방세 탈루 엄히 다스려야

원룸 주택을 신축한 뒤 사전 입주 및 미등기 전매를 통해 지방세를 탈루한 광주지역 건축주 200여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그동안 원룸 건축사업 붐이 일면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사전 입주와 미등기 전매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어서 향후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이 우려된다. 광주시는 최근 원룸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킨 뒤 미등기 전매행위로 지방세를 탈루한 건축주 209명을 적발하고, 이들로 부터 17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불법을 저지른 건축주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MB 정부의 실패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지역 교육의 개혁은 앞으로 끊임없는 방해와 음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수록 지지세력은 물론 지지세력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포용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소통에서 나온다. 지역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 좌초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논설실장> jhjung@kwangju.co.kr

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4개월 간 임대수익을 챙긴 뒤, 같은 해 5월 B씨에게 원룸을 미등기 전매했다. B씨 역시 구청에 건축주 변경 신고만 하고 지난 9월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임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건축주들이 통상 많게는 1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하니 광주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전 입주에 따라 소방과 전기 등 안전점검도 제대로 안돼 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런 불법에 대해 개인끼리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이 불과하다. 전입 등록 명부, 전기·상하수도 사용료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이를 가려내는 일은 시 본연의 임무다. 지금이라도 문턱에 있는 규정을 악용해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를 탈루해왔다. 실제, 광주 서구의 건축주 A씨는 지난해 1월 사용승인이 받지 않은 원룸에 13명을 입주시키

원룸 주택을 신축한 뒤 사전 입주 및 미등기 전매를 통해 지방세를 탈루한 광주지역 건축주 200여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그동안 원룸 건축사업 붐이 일면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사전 입주와 미등기 전매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어서 향후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이 우려된다. 광주시는 최근 원룸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킨 뒤 미등기 전매행위로 지방세를 탈루한 건축주 209명을 적발하고, 이들로 부터 17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불법을 저지른 건축주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MB 정부의 실패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지역 교육의 개혁은 앞으로 끊임없는 방해와 음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수록 지지세력은 물론 지지세력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포용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소통에서 나온다. 지역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 좌초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논설실장> jhjung@kwangju.co.kr

# 위기의 '드림 오케스트라'에 꿈과 희망을

한국판 '엘 시스템'로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가 연습 장소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목표와 신안지역 보육시설 어린이들로 구성된 드림 오케스트라는 지난 1년간 폐교된 목포 초등학교에서 연습을 해왔으나 교육청 연수시설이 들어서게 돼 최근 철거작업이 시작되면서 마땅히 오갈 곳이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의 주선으로 창단한 드림 오케스트라는 단원 110명 모두 보육원 아이들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다니는 저소득층 어린이, 조순(祖孫) 가정과 한 부모 가정 자녀 등 소외계층 아이들이다. 그럼에도 드림 오케스트라는 창단 1년만인 지난 11월 4일 서울 충정로 1가 NH아트홀과 23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주한 미국대사관 주선으로 목표를 찾은 미국의 유명 첼리스트 벤저민 휘트랩 교

수의 '마스터 클래스' 프로그램도 훌륭하게 진행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환경 속에서 무난한 연습과 피나는 노력으로 희망을 키워온 이들에게 연습장이 없다는 건 좌절이자, 지금까지 뒷바라지를 해온 어린이재단과 오케스트라 강사 등 모든 이에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엄동설한에 야외에서 추위에 떨며 연습할 수 없지 않는가. 무엇보다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에서 연습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며, 가능하면 예산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과 단체, 주민들도 이들을 위해 온정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소외층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 해서도 재능을 키워나가 훗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밖에 없다. 관계당국과 뜻있는 분들의 관심으로 이 꿈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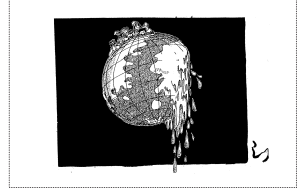
유한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인류에게 있어서 지구 종말론은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 가운데 하나다. 터키의 부유한 유대인의 아들 사바타이 제비(Sabbatai Zevi)는 지난 1648년에 "나는 메시아이다. 이 세상은 1666년에 멸망한다"고 예언했다. 출중한 외모와 카리스마를 갖추고 카발라(중세 유대교의 신비주의)의 비서(秘書)를 줄줄이 위

한층 실패를 얻게 됐고, '밀러 라이트'라는 단체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그를 따르던 수만 명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뻐하던 종말의 날은 '다행히도' 무사히 넘어갔다.

우를 그 주변엔 추종자들이 모여들었고, 급기야는 전 유럽에 영향을 행사하는 강력한 단체로 성장했다. 운명의 해인 1666년 봄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들며 세상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제비는 그해 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으며, 사형이 언도될 것을 직감한 그는 재빨리 터번을 쓰고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미국에서는 윌리엄 밀러가 "1843년 4월 3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때마침 1833년에 하늘에서 유성이 쏟아져 내리면서 그의 주장은

이러 불렀으며, 마야의 달력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을 원년으로 시작해 13번째 박톤인 2012년 12월 21일에 끝난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내년 12월 21일을 종말의 날로 예측하고 있다. 고대 마야인이 저명한 종말의 해 '2012년'은 비를 맞았다. 하지만, 제비는 그해 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으며, 사형이 언도될 것을 직감한 그는 재빨리 터번을 쓰고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미국에서는 윌리엄 밀러가 "1843년 4월 3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때마침 1833년에 하늘에서 유성이 쏟아져 내리면서 그의 주장은

## 지구 멸망의 날



영화까지 만들어져 인기를 끌었다. 죽음이나 종교처럼 종말론의 진위 여부도 결국엔 그날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불사(不死)는커녕 한 치 앞의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는 인간이 종말론에 빠져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닐까. /홍행기 정경부차장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내선	222-4918	편집국장	李康完
대표FAX	222-4267	경영지 원국	2200-515
대표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FAX	222-4918	여론채우	2200-621
대표FAX	222-4918	체육팀	2200-693
대표FAX	222-4918	사건팀	2200-697
대표FAX	222-4918	조사부	2200-571
대표FAX	222-4918	전산팀	2200-685
대표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FAX	222-4267	여론채우	2200-621
대표FAX	222-4267	체육팀	2200-693
대표FAX	222-4267	사건팀	2200-697
대표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대표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